

유성구 공립 작은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id-to Long-Term Development Plan for Public Small Libraries in Yuseong-gu, Daejeon

노 영 희(Younghee Noh)**, 장 인 호(Inho Chang)***
강 지 혜(Jihe Kang)****, 노 지 윤(Ji-Yoon Ro)*****
신 영 지(Youngji Shin)*****

< 목 차 >

I. 서 론	IV. 유성구 작은도서관 인식 및 운영 실태 분석
II. 연구설계 및 방법론	V. 유성구 작은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III. 유성구 작은도서관 현황 조사	VI. 결 론

요 약: 본 연구는 유성구 공립 작은도서관의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분석과 함께 유성구 공립 작은도서관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이용자 설문조사와 운영자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유성구 작은도서관은 장서 규모, 이용자 수, 프로그램 운영 등 양적 지표에서는 비교적 우수한 수준을 보였으나, 자원봉사자 중심의 운영 구조, 도서관 간 이용 격차, 장서 및 프로그램 다양성의 한계,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미흡 등 질적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전을 “생활 속 지식·문화 허브, 모두를 연결하는 공간”으로 설정하고, 추진목표를 “공공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생활밀착형 지식문화 허브 실현”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전략과제로는 첫째, 공공성으로 신뢰받는 작은도서관 구축, 둘째, 다 함께 누리는 지식·정보 문화 활성화, 셋째, 함께 만드는 지역 협력 네트워크 강화, 넷째, 전문성과 지속성을 강화하는 운영 기반 구축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작은도서관, 중장기 발전 계획, 작은도서관 정책, 운영 활성화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operational status of public small libraries in Yuseong-gu and to establish a mid- to long-term development plan reflecting regional characteristics. To this end, the study reviewed prior research, examined the operational status of public small libraries in Yuseong-gu, and conducted user surveys and interviews with library operators. The findings show that while small libraries in Yuseong-gu demonstrate relatively strong performance in quantitative indicators such as collection size, number of users, and program operations, several qualitative challenges remain. These include limited professionalism due to volunteer-centered operations, disparities in library usage, constraints in collection and program diversity, and insufficient collaboration with public librarie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oposes a vision of “a knowledge and cultural hub in everyday life that connects all users,” along with the goal of realizing a community-based, user-centered knowledge and cultural hub grounded in publicness and professionalism. To achieve this, four strategic directions are suggested: strengthening public trust in small libraries, promoting inclusive knowledge and cultural services, enhancing regional cooperation networks, and establishing a sustainable and professional operational foundation.

KEYWORDS: Small Libraries, Mid-to Long-term Development Plan, Small Library Policies, Operation Revitalization

- * 본 연구는 2025년 대전 유성구 평생학습원 도서관운영과의 지원에 의해 수행된 ‘유성구 도서관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보고서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rs4u@kku.ac.kr / ISNI 0000 0000 4120 5652) (제1저자)
 - *** 대전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hoinchang@daejin.ac.kr / ISNI 0000 0004 6108 9280) (공동저자)
 - **** 동덕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jhkang@dongduk.ac.kr / ISNI 0000 0004 6815 0603) (공동저자)
 - ***** 광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jyro@gwangju.ac.kr / ISNI 0000 0004 7859 8321) (공동저자)
 - ***** 동의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yjishin@deu.ac.kr / ISNI 0000 0004 7936 7250) (교신저자)
- 논문접수: 2026년 2월 21일 • 최초심사: 2026년 3월 7일 • 게재확정: 2026년 3월 24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7(1), 233-262, 2026. <http://dx.doi.org/10.16981/kliss.57.1.202603.233>

※ Copyright © 2026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동안 도서관, 체육관, 어린이집 등 생활 밀착형 사회간접 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 확충을 위해 총 3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하였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8). 이러한 정책은 주민의 일상과 밀접한 공공 인프라를 확충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공동체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 방향성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서관은 단순한 자료 제공 기관을 넘어 지역공동체 중심의 생활·문화 복합공간으로 기능이 확대되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공동체를 연결하는 공공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조미아 외, 2021). 이와 같은 정책 환경 속에서 작은도서관의 중요성 또한 확대되고 있다.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에 근거한 소규모 공공도서관으로서 공공도서관을 보완하는 생활권 기반 문화시설이며,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정을 통해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등록 작은도서관 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김보일 외, 2020). 「제4차 도서관발전 종합계획(2024~2028)」에서도 지식정보 취약계층 대상 도서관 서비스 강화와 지역사회 기반 문화 서비스 확대가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2024년에는 ‘우수 작은도서관 선정 제도’가 처음 시행되어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창의적 운영 사례를 발굴·확산하는 정책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장경, 김혜영, 2025).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도서관 운영의 질적 내실화와 지속가능성 확보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운영 인력의 전문성 부족, 자원 봉사자 중심의 운영 구조, 재정적 제약 등으로 인해 도서관 간 운영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휴·폐관이 반복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지원 확대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로, 지역 실정에 맞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발전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기존 연구에서도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제도적 방안이 제시되어 왔다. 진은설(2022)은 제주지역 내 21개관의 작은도서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관심 유도, 독서문화프로그램 확대운영, 운영인력의 전문성 확보, 운영인력 충원, 예산 확대 및 운영인력의 인건비 기준마련, 작은도서관지원센터 설립 등의 활성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오선경 외(2025)는 전국 244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재정·인력 지원 기준의 명확화와 지원 격차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김보일 외(2024)는 K구 사례 분석을 통해 생애주기별 지원 체계 구축과 운영평가 지표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작은도서관 운영 개선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나, 상당수 연구는 운영 실태 진단이나 정책 개선 방향 제시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으며, 작은도서관 현황 분석과

이용자 설문조사, 운영자 인식 조사를 기반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유성구 공립 작은도서관의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이용자 설문조사와 운영자 면담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성구 작은도서관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성구 작은도서관의 지속가능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타 지역 작은도서관의 발전계획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작은도서관은 지역 주민의 독서 활동과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문화 기반 시설로서 지역 공동체 형성과 문화 복지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적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작은도서관의 정책 환경, 운영 실태, 이용자 인식 및 운영 성과 등과 관련한 다양한 선행연구가 수행되었다. 기존 선행연구는 크게 작은도서관 정책 및 지원체계 연구,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 및 인식 연구, 작은도서관 운영 평가 및 효율성 연구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작은도서관 정책 및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오선경 외(2025)는 작은도서관 관련 법령·제도 및 정부지원사업을 분석하고, 전국 244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하여 운영 및 지원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작은도서관 관련 법령 정비, 광역 단위 작은도서관 지원센터 확대·정비, 지자체 간 지원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표준 조례안 및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시설 노후도와 활용도를 반영한 차등 지원 기준 및 국고 연계 등의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구정화 외(2025)는 작은도서관 지원정책의 성과 도달률을 중심으로 정책 효과성을 분석하여 정책 성과 수준이 전반적으로 중간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하고, 작은도서관 지원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 및 운영상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둘째,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와 이용자 및 운영자 인식을 분석한 연구가 다수 수행되어 왔다. 김보일 외(2015)는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를 통해 질적인 운영지원으로의 방향 전환, 공립 작은도서관의 운영의 안정화 노력, 작은도서관 법적기준의 강화, 작은도서관 캠페인을 통한 기업 참여유도 등을 제시하였다. 진은설(2022)은 제주지역 작은도서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운영 인력의 전문성 확보, 예산 확대, 작은도서관 지원센터 설립 등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보라(2023)는 성남시 작은도서관의 이용자와 운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표적 집단인터뷰를 실시하여 이용 행태와 인식을 분석하였으며,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재정 확보와 운영 인력 확충, 독서문화 및 평생교육 공간으로서의 기능 강화, 협의체 구성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경선 외(2022)는 양평군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자를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실시하여 시설 노후화, 인력 부족,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장서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 특성화 장서 및 독서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만호 외(2021)는 광명시 작은도서관 운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지원제도 개선,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강화, 순회사서 및 전문가 봉사자 활용, 상호대차를 통한 자료 공유 등의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한문성 외(2017)는 서울시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운영 현황과 운영 만족도 및 중요도 인식을 조사하였으며, 운영 지원 확대, 자원봉사자 교육 및 처우 개선, 장서의 질적 향상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작은도서관 운영 평가 및 효율성을 분석한 연구도 수행되어 왔다. 김보일 외(2024)는 서울 K구 사례를 중심으로 작은도서관 운영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운영 활성화 방안으로 공·사립 작은도서관 효율적 운영 체제 개선, 작은도서관 관련 자치법규,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기반 『작은도서관 운영평가 지표』 개선, 작은도서관 생애주기별 지원 체계 구축,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컨설팅단 운영 등을 제안하였다. 이영훈 외(2025)는 DEA(Data Envelopment Analysis)의 가장 대표적인 모형인 CCR 모형과 BCC 모형을 이용하여 상대적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로 작은도서관 각각에 대한 상대적 효율성 지수를 도출하고, 비효율적으로 평가된 작은도서관의 구조조정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기존 연구에서 거의 시도하지 않은 사례 중심의 미시적 분석을 통해 비효율적으로 평가된 작은도서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기존 연구들은 작은도서관의 정책 환경, 운영 실태, 이용자 및 운영자 인식, 운영 평가 등 다양한 측면에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대부분 개별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어, 지역 단위에서 운영 현황과 이용자 인식, 운영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중장기 발전 전략을 제시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유성구 공립 작은도서관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운영 현황 분석과 함께 이용자 만족도 및 수요 조사, 운영자 면담조사를 종합적으로 실시하여 지역 차원의 실질적 운영 여건과 요구를 반영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II. 연구설계 및 방법론

본 연구는 유성구 작은도서관의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이용자 설문조사와 운영자 면담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유성구 공립 작은도서관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방향과 전략을 도출하는 데 있다.

첫째, 작은도서관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조사·분석하였다. 작은도서관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실태와 이용자 및 운영자 인식, 운영 평가 및 효율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수행된 선행연구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연구의 주요 논의와 한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용자 설문조사와 운영자 면담조사 문항을 구성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다.

둘째, 유성구 작은도서관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였다. 현재 운영 중인 공립 작은도서관 7개관을 중심으로 운영 현황을 조사·분석하였으며, 이와 함께 작은도서관의 운영 현황을 보다 다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데이터를 활용하여 작은도서관 수, 장서 현황, 이용자 수, 연간 도서대출 현황,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도 조사·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공립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으나, 지역 내 작은도서관의 운영 구조와 특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현황 분석 단계에서는 공립 작은도서관과 사립 작은도서관을 구분하여 구조적 특성과 운영 실태를 함께 비교 분석하였다. 아울러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 간 비교 분석을 실시하고, 인구 규모가 유사한 타 지역과의 현황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유성구(366,771명)의 상대적 위치와 특성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비교 대상 지역은 인구 규모를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372,874명)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374,321명)로 선정하였다.

셋째, 공립 작은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유성구 내 공립 작은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 현황, 서비스 만족도 및 향후 수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유성구에는 현재 총 7개의 공립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본 조사는 해당 7개 도서관을 모두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25년 9월 2일부터 9월 11일까지였으며, 유성구 공립 작은도서관 내에 QR코드를 비치하여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배포·회수하였다. 설문지는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일반사항, 이용 현황, 만족도, 수요도 등 4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설문 문항의 구체적 내용은 <표 1>과 같다.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6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다지선다형 문항에 대해서는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5점 리커트 척도 문항에 대해서는 기술 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1> 작은도서관 이용자 설문지 구조도

구분	세부문항	문항수
일반사항	성별, 연령, 거주지	3
작은도서관 이용 현황	이용하는 작은도서관	6
	작은도서관 이용 빈도	
	작은도서관 평균 이용 시간	
	작은도서관 이용 행태	
	작은도서관 이용하는 이유	
작은도서관 만족도	작은도서관 주 목적	4
	전반적인 만족도	
	작은도서관 서비스 만족도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만족도	
작은도서관 수요도 조사	작은도서관에 기대하는 역할	2
	유성구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	
계		15

넷째, 유성구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자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면담조사는 유성구 작은도서관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개선 필요 사항 및 향후 발전 방향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특히 운영자와 자원봉사자의 현장 경험과 의견을 수집하여 유성구 작은도서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이슈와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면담 대상은 유성구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자 및 자원봉사자이며, 유성구 공립 작은도서관 7곳 전체를 대상으로 면담지를 배포하여 총 11부를 회수하였다. 면담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서면 면담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자료 수집 기간은 2025년 9월 2일부터 9월 11일 까지였다. 회수된 면담 자료는 먼저 응답자별로 문항에 대한 응답을 코딩하였으며, 이후 응답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요 내용을 그룹화하였다. 면담 문항의 구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작은도서관 운영자 면담지 구조도

구분	면담 문항
Q1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면서 겪는 애로사항이나 어려움
Q2	작은도서관 운영에 있어 가장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Q3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이나 개선 방안(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Q4	현재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협력 현황과 앞으로의 개선 방향
Q5	유성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정책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
Q6	유성구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정책을 타 지역과 차별화하기 위한 방안과 향후 정책 방향
Q7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지원이나 보조금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Q8	작은도서관 운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이나 역량 지원
Q9	향후 유성구 작은도서관이 지역사회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

Ⅲ. 유성구 작은도서관 현황 조사

1. 유성구 공립 작은도서관 현황

2025년 6월 기준으로 유성구에는 총 7개의 공립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도서관의 대부분은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어린이영어마을도서관만 직영제로 운영되고 있다(<표 3> 참조).

〈표 3〉 유성구 도서관 시설현황

구분	시설개요	인력
온천마을작은도서관 (2011.10.14.)	• 면적/도서: 196㎡ / 19,349권 • 어린이 · 일반자료실	20명 • 운영위원 8, 자원봉사자 12
자운마을작은도서관 (2012.9.21.)	• 면적/도서: 99.42㎡ / 13,755권 • 어린이 · 일반자료실, 문화사랑방	12명 • 운영위원 10, 자원봉사자 2
신성마을작은도서관 (2013.6.27.)	• 면적/도서: 152㎡ / 21,054권 • 어린이 · 일반자료실, 문화사랑방	18명 • 운영위원 6, 자원봉사자 12
송강마을작은도서관 (2013.7.16.)	• 면적/도서: 166.29㎡ / 16,692권 • 어린이 · 일반자료실, 문화사랑방	12명 • 운영위원 5, 자원봉사자 7
어린이영어마을도서관 (2015.7.20.)	• 면적/도서: 234.13㎡ / 24,396권 • 자료실, Reading · Program Room	2명(직영) • 시간선택제 1, 기간제 1
별풍별과학도서관 (2016.7.12.)	• 면적/도서: 532.5㎡ / 17,217권 • 자료실, 다목적강당, 커뮤니티실	32명 • 운영위원 8, 자원봉사자 24
문학마을도서관 (2017.10.21.)	• 면적/도서: 263㎡ / 11,294권 • 어린이 · 일반자료실, 문학방	28명 • 운영위원 9, 자원봉사자 19

2025년 6월 기준으로 유성구 공립 작은도서관의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총 장서 수는 136,165권, 회원 수는 37,751명으로 나타났으며 권의 대출 권수는 34,024권, 대출자 수는 13,754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평균 대출 권수는 324권, 이용자 수는 131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서관별 일평균 이용자 수는 5명에서 31명까지 차이를 보여, 도서관 간 이용 규모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4〉 공립 작은도서관 이용 현황

구분	소장도서(권)	회원수(명)	권의대출권수(권)	대출자수(명)	일평균	
					권	명
온천	20,099	4,141	1,427	782	14	8
자운	16,542	8,621	6,698	2,453	65	24
신성	22,483	4,608	3,874	2,044	38	20
송강	20,461	4,693	1,235	559	12	5
영어	25,363	6,165	8,983	3,130	87	30
별풍별	18,417	4,247	8,367	3,193	81	31
문학	12,800	5,276	3,440	1,593	27	13
계	136,165	37,751	34,024	13,754	324	131

2. 유성구 작은도서관 주요 통계 지표 분석

가. 작은도서관 수 현황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의 작은도서관은 총 221개관으로, 이 중 공립은 36개관(15.63%), 사립은 185개관(84.37%)으로 나타났다. 구별로 살펴보면, 중구는 총 49개관 중 공립이 16개관(32.65%)으로 공공 운영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유성구는 총 74개관으로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여 도서관 수 측면에서는 가장 큰 비중을 보였으나, 공립은 10개관(13.51%)에 그쳐 공공성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대전 내 작은도서관의 양적 규모는 유성구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공공성 비중은 중구에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인구 규모가 유사한 타 지역과 비교한 결과, 세 지역의 공립 작은도서관 평균 비율은 23.62%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는 총 37개관 중 공립이 19개관(51.35%)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공공성이 매우 높은 구조를 보였으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는 총 50개관 중 공립이 3개관(6.00%)에 불과하였다. 이에 비해 유성구는 총 74개관 중 공립 10개관(13.51%)으로, 전체 관 수는 비교 지역 중 가장 많으나 공립 비율은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5〉 대전 내 작은도서관 수

구분	공립		사립		계
	도서관수	비율	도서관수	비율	
대덕구	4	16.00	21	84.00	25
동구	2	6.90	27	93.10	29
서구	4	9.09	40	90.91	44
유성구	10	13.51	64	86.49	74
중구	16	32.65	33	67.35	49

나. 작은도서관 장서 현황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 작은도서관의 총 장서 수는 1,424,314권이며, 연간 장서 증가 수는 67,630권으로, 1관당 평균 장서 수는 약 6,447권으로 나타났다. 구별 현황을 살펴보면, 유성구는 보유 장서 544,127권, 연간 증가 장서 28,654권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서구 322,226권, 중구 253,220권, 동구 160,802권, 대덕구 143,939권 순으로 나타났다. 1관당 평균 장서 수 역시 유성구가 7,353권으로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인구 규모가 유사한 타 지역과 비교 분석한 결과, 유성구는 보유 장서 수와 연간 증가 장서 수 모두에서 해운대구와 영등포구를 상회하는 수준을 보였다. 특히 공립 작은도서관의 1관당 평균 장서 수는 15,224권으로, 해운대구(7,607권)와 영등포구(9,560권)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표 6〉 대전 내 작은도서관 장서 현황

구분	공립			사립			계		
	연간 증가 장서수	보유 장서수	1관당 장서수	연간 증가 장서수	보유 장서수	1관당 장서수	연간 증가 장서수	보유 장서수	1관당 장서수
대덕구	1,276	19,000	4750	6,955	124,939	5949.476	8,231	143,939	5757.56
동구	494	16,313	8156.5	6,606	144,489	5351.444	7,100	160,802	5544.897
서구	3,133	51,875	12968.75	9,958	270,351	6758.775	13,091	322,226	7323.318
유성구	5,323	152,239	15223.9	23,331	391,888	6123.25	28,654	544,127	7353.068
중구	1,529	82,072	5129.5	9,025	171,148	5186.303	10,554	253,220	5167.755

다. 이용자 수 현황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 작은도서관의 연간 총 이용자 수는 917,155.53명이며, 1일 평균 이용자 수는 2,846.34명, 회원등록자 수는 134,694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유성구는 연간 이용자 수 426,519.6명으로 전체의 46.5%를 차지하였으며, 1일 평균 이용자 수 938.35명, 회원등록자 수 79,525명으로 세 지표 모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회원등록자 수는 전체의 약 59.0%를 차지하여, 안정적인 이용자 기반과 높은 충성도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립과 사립 구조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연간 총 이용자 수는 공립 작은도서관이 62.3%, 사립 작은도서관이 3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1일 평균 이용자 비중에서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인구 규모가 유사한 타 지역과 비교한 결과, 유성구는 연간 총 이용자 수와 회원등록자 수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1일 평균 이용 밀도는 영등포구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7〉 대전 내 작은도서관 이용자 수

구분	공립			사립			계		
	연간 총 이용자 수 (명)	1일 평균 이용자 수 (명)	회원 등록자 수	연간 총 이용자 수 (명)	1일 평균 이용자 수 (명)	회원 등록자 수	연간 총 이용자 수 (명)	1일 평균 이용자 수 (명)	회원 등록자 수
대덕구	25,383	114	2,212	57,786	239.5	6,283	83,169	353.5	8,495
동구	7,929.9	32.3	1,318	51,816.53	202.13	5,139	59,746.43	234.43	6,457
서구	23,864	91.56	14,105	187,505	707.5	18,201	211,369	799.06	32,306
유성구	265,927.1	278.904	44,298	160,592.5	659.4488	35,227	426,519.6	938.3528	79,525
중구	13,498	52	2,137	122,853.5	469	5,774	136,351.5	521	7,911

라. 연간 도서대출 현황

대전광역시 5개 구의 연간 도서 대출 권수는 총 473,536권으로 나타났다. 유성구는 229,077권 (48.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공·사립 구조를 살펴보면, 유성구는 공립(52.9%)과 사립(47.1%)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영등포구의 공립 집중형 구조(97.7%)와 대비되는 특징이다. 유사 지역과 비교하면, 유성구는 대출 규모에서 해운대구보다 높으나, 영등포구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표 8〉 대전 내 작은도서관 연간 도서대출 현황

구분	공립	사립	계
대덕구	14,928	23,888	38,816
동구	34,389	18,125	52,514
서구	38,802	84,192	122,994
유성구	121,249	107,828	229,077
중구	9,079	21,056	30,135

마.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 현황

대전광역시 5개 구의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은 총 718건이 운영되었으며, 실시 횟수는 5,692회, 참가자는 총 66,424명으로 나타났다. 구별로 살펴보면, 프로그램 수는 유성구가 29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구 211건, 대덕구 88건, 중구 65건, 동구 55건 순으로 나타났다. 실시 횟수 또한 유성구가 2,193회로 가장 높았고, 서구 2,018회, 중구 580회, 대덕구 574회, 동구 327회 순으로 나타났다. 참가자 수는 서구가 27,39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성구 25,761명, 대덕구 5,574명, 중구 5,280명, 동구 2,411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성구가 프로그램 규모와 운영 빈도 측면에서는 높게 나타났으나, 참가자 수에서는 서구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특성을 보임을 의미한다. 공·사립 구조를 살펴보면, 유성구의 공립 작은도서관은 89건(660회, 7,033명), 사립 작은도서관은 210건(1,533회, 18,728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체의 약 70%가 사립 작은도서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성구가 프로그램 운영 규모와 다양성 측면에서는 앞서 있으나, 운영 구조는 사립 작은도서관 중심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인구 규모가 유사한 지역과 비교할 경우, 유성구는 프로그램 수(299건), 실시 횟수(2,193회), 참가자 수(25,761명) 모두에서 비교 지역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참가자 수는 해운대구의 약 1.8배, 영등포구의 약 8.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프로그램 운영 규모 면에서 상당한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대전 내 작은도서관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 현황

구분	공립			사립			계		
	프로그램 수 (건)	실시횟수 (건)	참가자 수 (명)	프로그램 수 (건)	실시횟수 (건)	참가자 수 (명)	프로그램 수 (건)	실시횟수 (건)	참가자 수 (명)
대덕구	13	92	2,681	75	482	2,893	88	574	5,574
동구	0	0	0	55	327	2,411	55	327	2,411
서구	69	854	10,419	142	1,164	16,979	211	2,018	27,398
유성구	89	660	7,033	210	1,533	18,728	299	2,193	25,761
중구	9	136	730	56	444	4,550	65	580	5,280

IV. 유성구 작은도서관 인식 및 운영 실태 분석

1.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본 설문조사는 유성구 내 공립 작은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 현황, 서비스 만족도 및 향후 수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작은도서관 서비스 개선과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는 총 143명이 참여하였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여성 112명(78.32%), 남성 31명(21.68%)으로 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분포는 40대가 45명(31.4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50대 31명(21.68%), 60대 이상 30명(20.98%), 30대 23명(16.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 분포를 보면, 온천2동이 64명(44.7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어 신성동 20명(13.99%), 원신흥동 13명(9.09%), 전민동과 관평동이 각각 10명(6.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 작은도서관 이용현황

첫째, 주로 이용하는 작은도서관을 분석한 결과, 별뿔별 과학도서관이 25.8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어 온천마을 작은도서관(13.99%), 신성마을 작은도서관(11.19%)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그 외 공립 작은도서관의 이용 비율은 모두 3% 미만으로 나타나, 이용이 특정 소수 도서관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지역 내 작은도서관 간 이용 편차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접근성, 시설 환경, 프로그램 구성 등 도서관별 특성이 이용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작은도서관의 이용 빈도를 분석한 결과, 주 1회 정도가 38.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 3~4회(26.57%), 월 1~3회(14.69%), 거의 매일(12.5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 1회 이상 이용자가 전체의 약 7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수의 이용자가 작은도서관을 정기적·주기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작은도서관이 일상 속 학습 및 문화 공간으로 일정한 이용 기반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작은도서관의 평균 이용 시간을 분석한 결과, 1시간~2시간 미만이 33.5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2시간~4시간 미만(30.77%), 1시간 미만(26.57%)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약 64%가 1~4시간 미만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작은도서관은 장시간 체류형 공간이라기 보다는 중·단기 체류형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이용 행태를 분석한 결과,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함께 이용한다는 응답이 60.1%로 나타났으며, 작은도서관만 이용한다는 응답은 39.9%로 나타났다. 이는 과반수 이상의 이용자가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보완적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이용자들은 필요와 목적에 따라 도서관을 선택적으로 병행 이용하고 있으며, 작은도서관은 지역 내 생활밀착형 도서관으로서 공공도서관과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약 40%의 응답자가 작은도서관만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게 작은도서관이 사실상 주요 도서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섯째, 작은도서관 이용 이유를 분석한 결과, 집이나 직장에서 가까워서가 76.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운영 시간 및 접근성이 편리해서(46.9%), 규모가 아담하고 이용 분위기가 편안해서(41.3%), 주변에 가까운 공공도서관이 없어서(22.4%), 지역 주민과의 교류·만남이 가능해

서(21.7%)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작은도서관 이용이 무엇보다 물리적 근접성과 생활밀착성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운영 시간의 편리성과 공간 분위기의 쾌적성 역시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 작은도서관이 단순한 자료 제공 기관을 넘어 이용자 친화적 환경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지역 주민 간 교류·만남과 같은 공동체적 기능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이용 동기 측면에서는 사회적 기능보다는 개인적 편의성이 우선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섯째, 작은도서관의 이용 목적을 분석한 결과, 도서 대출이 8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독서를 위해(48.3%), 문화 프로그램 참여(32.2%), 자녀 교육(24.5%), 개인 공부 및 연구(16.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0% 이상이 도서 대출을 주요 목적으로 선택한 점은 작은도서관이 지역 주민의 자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독서 활동과 문화 프로그램 참여가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작은도서관이 개인적 독서 공간이자 지역 문화·교육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반면, 개인 연구, 모임 활동, 정보 탐색, 단순 채류 등의 목적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작은도서관의 활용이 특정 기능(대출·독서·문화 활동)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작은도서관 이용 목적 (복수응답)

구분	빈도	퍼센트
도서 대출	118	82.5%
독서를 위해	69	48.3%
개인 공부 및 연구를 위해	24	16.8%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46	32.2%
사서의 도움이 필요해서	5	3.5%
시간을 보내기 위해	15	10.5%
자녀 교육을 위해	35	24.5%
지역모임 및 동아리 활동을 위해	21	14.7%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	16	11.2%
기타	5	3.5%

나. 작은도서관 이용 만족도

첫째,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인 전체 만족도가 4.29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로는 도서관 위치 및 이동거리(4.38)와 시설관리 및 청결상태(4.38)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자료 및 서비스(4.11), 시설 및 내부 공간(4.09)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은도서관이 접근성과 청결 관리 측면에서 이용자에게 높은 만족도를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이용 장비(컴퓨터 등)와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 관련 항목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서비스 다양화와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영역으로 판단된다.

〈표 11〉 작은도서관 전체 만족도

구분	M	Std
전반적인 전체 만족도	4.29	0.756
자료 및 서비스	4.11	0.840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	3.96	0.911
시설 및 내부 공간	4.09	0.887
이용 장비(컴퓨터 등)	3.80	0.990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	3.94	0.874
도서관 위치 및 이동거리	4.38	0.785
시설관리 및 청결상태	4.38	0.787

둘째, 작은도서관의 서비스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직원의 친절도가 4.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이용 절차의 편리성(4.24), 직원의 전문성(4.17), 이용 규정의 적절성(4.07), 자료 검색의 편리성(4.01), 자료의 최신성(3.83), 자료의 충분성(3.70)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은도서관이 인적 서비스 측면, 특히 직원의 응대 태도와 이용 절차의 편의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자료의 충분성과 최신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장서 확충 및 최신 자료 확보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주요 과제로 제시된다.

셋째, 프로그램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프로그램 수준 및 전문성(3.9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프로그램 구성 및 충실성(3.87), 프로그램 운영 빈도(3.84), 프로그램 홍보(3.83), 프로그램의 다양성(3.74)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의 수준과 전문성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다른 영역 만족도와 비교할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값을 보이고 있다. 특히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홍보 항목은 다른 항목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나, 폭넓은 주제 개발과 보다 체계적인 홍보 전략 수립을 통한 참여 확대 노력이 요구된다.

넷째, 시설 및 환경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도서관 청결도(4.29)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이어 교통의 편리성(4.20), 도서관 관리 상태(4.17), 도서관 공간의 편리성(4.11), 도서관 운영시간의 적정성(3.96)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작은도서관이 청결 관리와 접근성 측면에서 높은 이용자 만족도를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 작은도서관 수요 조사

첫째, 작은도서관에 기대하는 역할을 분석한 결과, 독서활동 지원 및 독서프로그램 운영(56.6%)과 다양한 자료 확충(55.2%)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문화활동을 누릴 수 있는 기회 제공(45.5%),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복합생활공간 기능(3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서활동 지원 및 독서프로그램 운영과 다양한 자료 확충은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응답한 항목으로, 작은도서관이 생활밀착형 독서·자료 제공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한편,

문화활동 기회 제공과 복합생활공간 기능에 대한 응답도 비교적 높은 비율로 나타나, 작은도서관이 단순한 독서 공간을 넘어 지역 주민의 문화·여가·커뮤니티 공간으로 확장되기를 기대하는 수요 또한 뚜렷하게 나타났다.

〈표 12〉 작은도서관에 기대하는 역할 (복수응답)

구분	빈도	퍼센트
다양한 자료 확충	79	55.2%
독서활동 지원 및 독서프로그램 운영	81	56.6%
문화활동을 누릴 수 있는 기회 제공	65	45.5%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복합생활공간	53	37.1%
자격증 획득 등 실질적 평생교육	18	12.6%
지역사회교류와 이해를 위한 공간	26	18.2%
체험과 창작활동이 가능한 공간	22	15.4%
교양 측면의 평생교육	20	14.0%
필요한 정보 제공	15	10.5%
기타	0	0.0%

둘째,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분석한 결과,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지원(49.0%)'과 '도서관 자료의 양적 증대(46.2%)'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도서관 자료의 주제 다양화(41.3%)', '도서관 시설 등 환경 개선(32.2%)', '지역주민 간 교류 활성화 사업(30.1%)', '유성구 작은도서관만의 특화 서비스 강화(29.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요소가 프로그램 지원 확대와 자료 확충임을 보여준다. 즉, 향후 작은도서관은 장서를 우선적으로 확충함과 동시에, 다양한 연령층과 주제를 포괄하는 프로그램 제공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설 환경 개선, 지역 주민 간 교류 활성화, 특화 서비스 강화 역시 비교적 높은 응답을 보였다는 점에서, 작은도서관이 단순한 자료 대출 공간을 넘어 생활 문화·커뮤니티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는 정책적 요구가 나타났다.

〈표 13〉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복수응답)

구분	빈도	퍼센트
도서관 자료의 주제 다양화	59	41.3%
도서관 자료의 양적 증대	66	46.2%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 강화	25	17.5%
도서관 운영 방법 개선	13	9.1%
도서관 시설 등 환경 개선	46	32.2%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지원	70	49.0%
지역주민간 교류 활성화 사업	43	30.1%
정보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강화	18	12.6%
유성구 작은도서관만의 특화 서비스 강화	42	29.4%
기타	2	1.4%

2. 운영자 면담조사 결과

본 면담조사는 작은도서관 운영자를 대상으로 유성구 작은도서관의 운영 현황과 주요 문제점, 개선 필요 사항 및 향후 발전 방향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특히 운영자와 자원봉사자의 현장 경험과 실무적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집함으로써, 유성구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과 정책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면담 결과는 크게 (1) 인력 및 운영 체계, (2) 행정 및 재정 지원, (3) 공간 및 시설 환경, (4) 자료 및 서비스, (5)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협력 및 네트워크, (6) 동기부여 및 인센티브의 여섯 영역으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력 및 운영 결과, 유성구 작은도서관은 전반적으로 자원봉사자 중심의 운영 구조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구조는 개인 사정에 따라 운영 참여가 불규칙해질 수 있어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회계·행정 업무와 같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에서 어려움이 나타났으며, 일부 봉사자에게 업무가 집중되어 과중한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도 확인되었다. 또한 봉사자 처우 수준이 낮아 장기적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작은도서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상근 전문 인력 배치를 전제로 한 직영화 전환이 요구된다.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한 운영 체계 구축은 서비스 품질의 향상과 행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14〉 인력 및 운영 관련 면담 의견

응답내용	빈도	응답문항
작은도서관 운영이 자원봉사자만으로 이루어져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6	Q2, Q3, Q4, Q6, Q7, Q8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운영비 집행과 결산 등 전반적인 업무는 전담 직원이 수행하고 자원봉사자는 보조 역할을 담당하는 운영 구조 개선 필요	5	
자원봉사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음	5	
자원봉사자 중심 운영으로 인한 업무 부담 및 전문성 한계	4	
상주 인력 배치 필요	2	

둘째, 행정 및 재정 지원으로, 운영자들은 보조금 신청, 집행, 정산 절차의 복잡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하였다. 지출 항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비 활용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며, 도서 구입비와 강사비 등 필수 재원의 부족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 보수 및 환경 개선을 위한 별도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노후 시설 개선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 간소화만으로 해결되기 어렵고, 자원봉사자 중심 구조에서 회계·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전문 인력이 행정 및 회계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직영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예산 집행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운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5〉 행정 및 재정 관련 면담 의견

응답내용	빈도	응답문항
도서 구입 예산 부족 및 운영비 지원 확대 필요	6	Q2, Q3, Q4, Q6, Q7, Q8
행정·회계 업무 부담 및 절차 간소화 필요	6	
프로그램 운영(강사비 등) 지원 확대 필요	2	
전문가 지원(도서 선정·운영 컨설팅 등) 필요	2	
시설 개선 및 환경 정비 지원 필요	1	

셋째, 공간 및 시설 환경이다. 일부 작은도서관은 독립 건물을 확보하지 못하고 외부 기관의 공간을 활용하고 있어, 해당 기관의 운영 방침 변화에 따라 도서관 운영이 영향을 받는 구조적 취약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공간이 협소하여 열람석, 학습 공간, 소모임 공간이 부족하며, 시설 노후화로 인한 비·누수, 출입문 고장 등 안전 및 편의 관련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학습·문화 활동 공간 확보에 제약이 존재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공간 확충과 시설 보수를 통해 이용 편의를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독립 건물 확보를 추진하여 운영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학습·독서·소모임 활동이 공존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재구성함으로써 복합적 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조성해야 한다.

〈표 16〉 공간 및 시설 관련 면담 내용

응답내용	빈도	응답문항
공간 협소로 인한 이용 불편 및 환경 개선 필요	6	Q2, Q3
시설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 및 예산 지원 필요	2	
독립 공간 확보 및 공간 분리 필요	2	

넷째, 자료 및 서비스이다. 장서 규모의 한계로 인해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권수 제한, 자료 구입 예산 축소, 신간 확보의 어려움 등은 서비스 만족도 저하로 이어지고 있으며, 특정 계층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은 다양한 연령층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신간 및 다양한 주제 분야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대출 권수 확대를 통해 자료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년층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서비스의 포괄성과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표 17〉 자료 및 서비스 관련 면담 내용

응답내용	빈도	응답문항
장서 부족 및 자료 확충 필요	3	Q2, Q3, Q4, Q7, Q8, Q10
특화 장서 구축 및 전문성 강화 필요	2	
이용자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및 다양화 필요	3	
프로그램 질적 개선 필요	1	
이용자 편의 확대(대출 권수, 즉시 구입 등) 필요	2	

다섯째, 공공도서관 - 작은도서관 협력 및 네트워크이다. 현재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은 행사 홍보 및 일부 행정 지원에 국한되어 있으며, 상호대차 서비스, 프로그램 공동 운영, 통합 도서관리 시스템 구축 등 실질적 연계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봉사자 대상 교육 및 교류 기회가 제한적이어서 전문성 강화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자원봉사자 중심 운영 구조에서는 개인정보 접근 권한 등의 문제로 통합 시스템 구축이 구조적으로 제약을 받는 측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공공도서관과의 실질적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을 기반으로 한 직영화 체계 전환이 선행되어야 하며, 성과발표회·견학비 지원 등 단편적 교류를 넘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네트워킹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 18〉 공공도서관 - 작은도서관 협력 및 네트워크 관련 면담 내용

응답내용	빈도	응답문항
공공도서관 - 작은도서관 간 상호대차 및 통합 시스템 구축 필요	4	Q4, Q5, Q6, Q8, Q10
공공도서관 기반 프로그램 및 강사 지원 확대 필요	5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및 연계 프로그램 확대 필요	3	
도서관 간 교류 및 협의체 구축 필요	4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전담 인력 및 컨설팅 등) 필요	2	

여섯째, 동기부여 및 인센티브이다. 자원봉사자의 장기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동기부여 및 보상 체계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청장 표창 등 일부 인센티브가 존재하나, 봉사 지속 여부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교육 수수료증 발급, 활동 단계별 인정제 도입, 문화·견학 프로그램 확대 등 다층적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하여 봉사자의 참여 동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표 19〉 동기부여 및 인센티브 관련 면담 내용

응답내용	빈도	응답문항
자원봉사자 처우 개선 및 실비 지원 확대 필요	3	Q2, Q3,
자원봉사자 교육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필요	9	Q4, Q5,
자원봉사자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필요	2	Q6, Q8,
자원봉사자 관리 및 동기부여 체계 구축 필요	3	Q9

V. 유성구 작은도서관 증장기 발전계획 수립

본 연구는 유성구 공립 작은도서관의 운영 현황 분석과 이용자 설문조사, 운영자 면담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유성구 작은도서관의 증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유성구 작은도서관은 장서 규모, 이용자 수, 도서 대출 실적, 프로그램 운영 등 주요 양적 지표에서 대전광

역시 내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인구 규모가 유사한 타 지역과 비교하더라도 전반적인 운영 기반은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간 이용 격차, 운영 전문성 부족, 서비스 다양성의 한계 등 질적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문제도 동시에 확인되었다. 특히 이용자 설문조사에서는 장서의 최신성 부족과 프로그램 다양성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타났으며, 운영자 면담에서는 인력 부족, 행정 부담, 시설 환경 문제 등 현장 중심의 운영 어려움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유성구 작은도서관 정책이 단순한 시설 확충 중심의 양적 성장 단계에서 벗어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질적 발전 단계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황 분석과 이용자 조사, 운영자 면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성구 작은도서관의 주요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을 제시하였다.

1. 분석 결과 기반 중장기 발전 방향성 도출

앞서 수행한 현황 분석, 이용자 설문조사, 운영자 면담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유성구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중장기 발전 방향성이 도출되었다.

첫째, 공공성 기반 운영체계의 한계이다. 유성구 작은도서관은 장서 규모와 프로그램 운영 등 양적 지표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하고 있으나, 공립 작은도서관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자원봉사자 중심의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운영의 전문성과 안정성 확보에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기존 선행연구에서도 작은도서관 운영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왔다(김보일 외, 2015; 전경선 외, 2022). 실제 운영자 면담에서도 행정·회계 업무 처리의 어려움, 자원봉사자의 참여 지속성 문제, 전문 인력 부재로 인한 프로그램 기획 및 장서 관리의 어려움 등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 또한 작은도서관 운영이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이루어질 경우 개인 사정에 따라 운영 참여가 불규칙해질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저하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장기적으로 도서관 간 서비스 수준의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공공서비스로서 작은도서관이 제공해야 하는 최소 서비스 기준을 유지하는 데에도 한계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작은도서관이 지역 공공서비스 인프라로서 안정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 배치와 공공성 기반 운영체계 구축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나타났다.

둘째, 도서관 간 서비스 격차와 저이용관 문제이다. 현황 분석 결과 일부 작은도서관은 높은 이용률과 프로그램 참여율을 보이는 반면, 다수의 작은도서관은 상대적으로 낮은 이용 실적을 보이는 등 도서관 간 운영 성과의 편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도서관의 입지 환경, 프로그램 구성, 장서 특성, 운영 인력 역량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동일한 운영 방식과 서비스 구조를 모든 작은도서관에 적용하는 방식으로는 이러한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작은도서관 정책은 도서관별 이용 특성과 지역 수요를 고려하여 기능 재편과 역할 분담을 추진하고, 저이용 도서관에 대해서는 기능 전환이나 특성화 전략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료 및 프로그램 서비스 개선 요구이다.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작은도서관의 접근성과 시설 환경, 직원 친절도 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가 나타났으나, 장서의 최신성과 자료의 충분성, 프로그램 다양성 등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은도서관 이용 목적이 도서 대출과 독서 활동 중심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서 구성의 최신성과 다양성 확보는 이용자 만족도와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들은 작은도서관이 단순한 자료 대출 공간을 넘어 다양한 문화 활동과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생활문화 공간으로 기능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구는 작은도서관이 지역 주민의 문화·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기능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장서 확충과 프로그램 다양화, 이용자 계층별 맞춤형 서비스 확대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제시된다.

넷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협력 체계의 미흡이다. 유성구에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함께 운영되고 있으나 양 기관 간 협력은 일부 행정 지원이나 행사 홍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상호 대차 서비스나 프로그램 공동 운영 등 실질적인 협력 구조는 충분히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자 면담에서도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프로그램이나 공동 사업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나타났으며,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자원과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협력 구조의 미흡은 지역 도서관 서비스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문화 서비스의 범위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은 향후 작은도서관 정책에서 중요한 과제로 제시된다.

다섯째, 운영 전문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문제이다. 운영자 면담 결과 작은도서관 운영 과정에서 인력 부족, 행정 부담, 재정 구조의 경직성 등이 주요 어려움으로 나타났으며, 운영자 간 경험과 역량의 차이로 인해 도서관별 운영 수준의 편차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일부 운영자는 프로그램 기획, 장서 관리, 행정 업무 처리 등 다양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작은도서관 운영이 자원봉사자 중심 구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운영자의 전문성 향상과 지속적인 역량 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지원 시스템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장기적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의 안정성과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 전문성 강화와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체계 구축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제시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유성구 작은도서관 정책이 단순한 시설 확충 중심의 양적 확대 정책에서 벗어나 운영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품질 개선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 전문성 제고 등을 중심으로 한 질적 발전 단계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2. 비전,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도출

앞선 과정을 종합하여 유성구 작은도서관의 비전을 “생활 속 지식·문화 허브, 모두를 연결하는 공간”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작은도서관이 단순한 자료 대출 공간을 넘어 생활권 기반의 지식·문화 플랫폼으로 기능해야 함을 의미한다. 추진목표는 “공공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생활밀착형 지식문화 허브 실현”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양적 확충을 넘어 공공성 강화와 전문성 확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데에 초점을 둔 것이다. 이와 같은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의 네 가지 전략을 도출하였다. 첫째, 공공성으로 신뢰받는 작은도서관 구축, 둘째, 다 함께 누리는 지식·정보 문화 활성화, 셋째, 함께 만드는 지역 협력 네트워크 강화, 넷째, 전문성과 지속성을 키우는 운영 기반 강화이다. 앞서 수행한 현황 분석, 이용자 설문조사, 운영자 면담 결과를 종합하여 도출된 주요 핵심 과제와 추진 전략을 정리하면 <표 20>과 같다.

<표 20> 현황, 설문, 면담 통합 분석을 통한 추진전략 도출 체계

현황 분석 핵심내용	설문조사 핵심내용	면담조사 핵심내용	도출된 핵심 과제	추진전략 도출
- 공립 비중 낮음 - 도서관별 성과 평가·저이용관 존재	- 공공성 강화 서비스 및 운영 표준화 요구	- 직영화 및 전담 인력 필요 - 서비스 격차 완화 필요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직영화 단계적 전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저이용관 기능조정 및 특성화	공공성으로 신뢰받는 작은도서관 구축
- 장서 다양성 및 특화 - 전자/비도서 확충 필요	- 자료 최신성 및 충분성 - 프로그램 다양성 개선 요구	- 도서 신간 확대 - 전세대 맞춤 프로그램 필요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간/장서 확충 및 맞춤형 구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프로그램 다양화 및 질 제고 <input checked="" type="checkbox"/> 포용적 문화서비스	다 함께 누리는 지식·정보 문화 활성화
- 공립/사립 역할 분담 및 균형 모델 필요	- 커뮤니티 기능, 주민 교류 활성화 수요	- 상호대차 및 프로그램 공유 - 정례 교류 필요	▶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공-작은도서관 연계 확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주민·지역조직 협력 확대	함께 만드는 지역 협력 네트워크 강화
- 질적 지표 개선 및 격차 해소 필요	- 전담 인력 교육 및 운영 전문성 제고 요구	- 인력·행정·재정 한계 - 표준화·평가체계 필요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레벨링/인증 기반 역량 강화 <input checked="" type="checkbox"/>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컨설팅 및 지원체계 고도화	전문성과 지속성을 키우는 운영 기반 강화

3. 운영 전략의 주요 내용

가. 공공성으로 신뢰받는 작은도서관

(1) 작은도서관의 직영화 전환

현재 유성구 공립 작은도서관 7개 중 어린이영어마을 도서관 1곳만 직영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나머지 6개 도서관은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인력의 지속성 확보, 행정 업무 처리의 안정성, 서비스 전문성 측면에서 구조적 한계를 가질 수 있다. 특히 운영자 면담에서도 자원봉사자 중심 운영 구조로 인해 행정·회계 업무 처리의 부담이 크고, 프로그램 기획과 장서 관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타났다.

이에 작은도서관 운영의 안정성과 서비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 책임에 기반한 운영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공립 작은도서관의 단계적 직영화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직영화 전환은 일괄적으로 추진하기보다 도서관의 이용률, 프로그램 운영 실적, 행정 업무

난이도, 인력 구조, 시설 및 안전 관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직영화 대상 도서관에는 최소 1인 이상의 전담 사서를 배치하여 운영의 전문성과 서비스 품질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전담 사서는 운영계획 수립, 프로그램 기획 및 관리, 장서 개발, 행정·회계 업무, 자원봉사자 관리, 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수행함으로써 운영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 나아가 직영화된 작은도서관은 생활권 기반 공공서비스 거점으로 재정비되어야 하며, 이는 이후 기능 재편 및 특성화 전략과 연계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다.

(2) 작은도서관의 기능 전환 및 특성화

운영체계 개선과 더불어, 도서관 기능의 재편을 통한 효율화가 필요하다. 현재 유성구 작은도서관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도서관 간 이용률 편차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며, 일부 도서관의 경우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명 미만에 머무르는 등 이용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방문자 수, 대출률, 프로그램 참여율 등 주요 지표를 기반으로 도서관별 운영 효율성을 진단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저조한 도서관에 대해서는 기능 전환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능 전환은 단순한 축소가 아니라 교육, 문화, 돌봄, 마을공동체 활동 등 지역 수요를 반영하여 역할을 재구조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복합문화공간으로의 전환, 커뮤니티 공간 기능 강화 등을 통해 도서관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기능 전환 이후에도 이용률 개선이 어려운 경우에는 통폐합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은 이용현황, 서비스 중복성, 운영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객관적 평가를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김보일 외, 2024).

이와 함께 작은도서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특성화 전략이 필요하다. 김재철(2013)은 지역 공동체 특성을 반영한 테마형 작은도서관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는 작은도서관의 정체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유성구는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한 과학도시로, 지식·연구 기반 인프라가 풍부하다는 점에서 특화 서비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다. 이에 과학·기술, 영어, 문화예술, 창작, 진로·학습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테마형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고, 생활권별 수요에 따라 기능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과학문화 프로그램, 청소년 진로 탐색, 창의 교육 프로그램 등은 유성구의 지역적 특성과 연계한 핵심 특화 서비스로 발전시킬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특화 도서관은 지역 내 학교, 연구소, 대학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운영하고, 지역 전문가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서비스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3) 작은도서관의 지원 제도 개선 및 지원 확대

유성구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도서관 간 이용률 편차가 크게 나타나며, 1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립 작은도서관이 자원봉사자 중심의 운영 구조를 가지고 있어 운영 안정성과 서비스 지속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서관별 운영 여건과 서비스 수준이 상이함을 의미하며, 동일한 기준에 따른 일률적인 지원 방식만으로는 각 도서관의 특성과 지역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에 정기적인 운영평가를 기반으로 한 차등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조미아 외(2013)는 연 1회 도서관 운영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면, 도서관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이러한 평가 기반 지원 체계는 단순한 성과 비교를 넘어, 도서관의 운영 여건과 지역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원 기준을 운영환경 영역과 지역환경 영역으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운영환경 영역은 운영 주체, 인력 구조, 프로그램 운영 수준, 특화 서비스 대상 등을 포함하고, 지역환경 영역은 생활권의 인구 구조, 지역 특성, 공공도서관 접근성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조미아 외, 2021). 이와 같은 평가 체계를 기반으로 도서관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운영 여건이 열악한 도서관에는 기초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 도서관에는 특화 프로그램 및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차별화된 지원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작은도서관 간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 전반적인 운영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작은도서관이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원봉사자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유성구 차원에서 '우수 작은도서관 인증제'를 도입하여 운영 성과가 우수한 기관을 정기적으로 선정하고, '우수 운영자 포상제'를 통해 운영자의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자원봉사자의 참여 동기를 강화하고, 작은도서관 운영의 안정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나. 다 함께 누리는 지식·정보 문화 활성화

(1) 효율적인 장서 확충 및 관리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장서 확충이 필요하다. 이용자 설문조사와 운영자 면담조사에서는 장서의 최신성과 다양한 자료 확충, 도서관 자료의 주제 다양화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은도서관 이용이 도서 대출과 독서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장서의 질적 수준이 이용 만족도와 서비스 이용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효율적인 장서 확충 및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상호대차서비스를 의무적으로 확대하여 지역 내 도서관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상호대차서비스는 한정된 자료 구입비로 인한 장서 부족 문제를 보완하고, 재정 및 공간 제약으로 인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며, 이용자의 자료 접근성을 확대하여 이용률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김보일 외, 2015; 최만호 외, 2021; 한문성 외, 2017).

또한 생활권 특성과 이용자 계층을 반영한 맞춤형 장서 구성 전략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아파트 밀집 지역은 아동·청소년의 학습 및 진로 관련 자료 중심으로, 원도심 지역은 노년층 대상 건강 및 여가 자료 중심으로, 대학가 인접 지역은 청년층의 교양 및 취업 관련 자료 중심으로 장서를 특성화할 수 있다. 전경선 외(2022) 연구에서도 주요 이용자층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작은도서관의 특화 장서 개발 필요성을 제시하며, 양평군 사례에서 향토, 예술, 환경, 관광, 노인, 건강, 어린이 영어 등의 주제를 기반으로 한 특성화 장서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지역성과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장서 전략이 작은도서관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장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 기반 장서 관리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도서 대출률, 이용 빈도, 상호대차 이용 현황 등을 분석하여 수요 중심의 장서 개발을 추진하고, 이용률이 낮은 자료는 순환배치 또는 폐기 및 재구성을 통해 장서의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을 통해 주제별 순환 장서 및 테마 컬렉션 공유를 활성화함으로써 제한된 공간에서도 다양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독서공동체 활성화와 포용적 문화서비스 강화

작은도서관은 생활권 기반의 높은 접근성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을 연결하고, 독서동아리와 같은 자발적 모임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교류와 소통을 촉진하는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용자 설문 조사에서는 '독서활동 지원 및 독서프로그램 운영'과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운영자 면담에서도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와 질적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는 작은도서관이 단순한 자료 제공을 넘어 참여 중심의 독서문화 공간으로 기능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에 독서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운영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독서동아리, 주제별 독서 모임, 주민 참여형 북클럽 등 자발적 참여 기반의 독서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아동, 청소년, 성인,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학, 진로, 문화예술 등 지역 특화 주제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 기관과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도서관 이용층을 확대할 수 있다. 장경과 김혜영(2025) 연구에서도 취약계층 대상 프로그램, 지역문제 해결형 프로그램, 지역 특화 프로그램이 이용자의 지속적 참여를 유도하는 핵심 전략임을 제시한 바 있다.

더불어 작은도서관은 문화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지역 및 계층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밀착형 시설로서의 역할도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 이동을 위한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 어르신 대상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정보취약계층의 독서권 보장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방문형 서비스(책 배달), 쉬운 글 도서 및 큰글자 도서 확충, 다국어 자료 제공 등 접근성 개선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이와 같은 독서공동체 활성화와 포용적 문화서비스 확대는 작은도서관을 단순한 자료 이용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 교류와 문화복지의 거점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핵심 전략이 될 것이다.

다. 함께 만드는 지역 협력 네트워크

(1) 공공도서관 - 작은도서관 연계 협력 체계 구축

현재 유성구 공립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 간 협력은 행사 홍보나 일부 행정 지원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상호대차 서비스나 공동 프로그램 운영과 같은 실질적인 협력 체계는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실질적인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우선 장서 확충 방안과 연계하여 상호대차서비스를 운영함으로써 주민이 원하는 자료를 생활권 내 작은도서관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통합 회원제를 도입하여 하나의 회원증으로 모든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독서토론, 저자 초청 강연, 청소년 진로 탐색, 과학문화 프로그램 등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공동으로 기획 및 운영함으로써 프로그램 중복을 줄이고 대상별·주제별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 특히 공공도서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작은도서관으로 확장 활용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작은도서관 운영자와 공공도서관 사서 간 정기 협의체를 운영하여 자료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 구조는 작은도서관이 생활권 기반 서비스 거점으로 기능하고, 공공도서관은 전문 서비스 지원 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도서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2)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작은도서관의 소통 강화

유성구 작은도서관은 생활권 기반 시설로서 높은 접근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이 자료 열람과 단순 프로그램 운영에 머물러 있어 지역공동체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용자 조사에서도 작은도서관이 단순한 독서 공간을 넘어 지역 주민의 문화 활동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생활문화 공간으로 기능하기를 기대하는 요구가 나타났다. 그러나 주민 교류와 세대 간 소통을 촉진할 수 있는 운영 체계가 부족하고, 도서관별 운영 방향과 특성이 뚜렷하지 않아 지역 기반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역할 수행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작은도서관을 지역공동체 소통 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한 운영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북카페형 공간 조성, 독서동아리 및 주민 자율 모임 지원, 마을 글쓰기 및 기록 활동 등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자발적 교류를 촉진할 수 있다. 또한 지역 축제, 과학문화 행사 등과 연계한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을 생활권 문화 활동의 중심 공간으로 활성화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작은도서관 공간을 주민 모임, 동아리 활동, 마을 커뮤니티 프로그램에 개방·활용하고, 지역 공동체 조직과의 협력을 통해 참여 기반 운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작은도서관은 단순한 자료 이용 공간을 넘어 주민 간 교류와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생활권 기반 소통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전문성과 지속성을 키우는 운영 기반 강화

(1) 전문 운영체제 구축을 위한 운영 레벨링(Leveling) 제도 도입

기존의 교육 중심 체계만으로는 작은도서관 운영자 간 역량 격차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일회성 교육은 실제 실무 능력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운영의 표준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제도 도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운영자의 핵심 직무 역량(자료관리, 프로그램 기획, 행정·회계 이해 등)을 기준으로 Level 1부터 Level 3까지의 단계별 운영 역량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신규 운영자는 Level 1 과정에서 대출·반납 처리, 자료 정리, 이용자 응대 등 기본 업무를 중심으로 교육과 실습을 이수하고, Level 2에서는 독서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장서 구성, 기초 예산 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 교육과 과제를 병행한다. Level 3에서는 특화 프로그램 개발, 신규 사업 기획, 타 도서관에 대한 멘토링까지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운영자로 성장하도록 단계적으로 역량을 강화하는 구조로 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운영자는 단계별 역량을 축적하게 되며,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인증 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유성구 작은도서관 운영자 인증제'를 도입하여 기본 단계에서는 자료관리 및 이용자 서비스 역량을, 심화 단계에서는 프로그램 기획, 예산 관리, 지역 협력 역량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아울러 인증 취득자에게 우수 운영자 표창 연계, 공모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전문 멘토 활동 기회 제공 등의 인센티브를 마련함으로써 지속적인 역량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는 운영자 전문성 향상과 함께 작은도서관 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2) 운영 데이터 기반 컨설팅·성과관리 체계 구축

현재 유성구는 도서관 간 운영 격차의 원인과 개선 우선순위를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다. 방문자 수, 대출률, 프로그램 참여율 등 주요 지표에서 도서관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관리 시스템은 부재하다.

이에 도서관 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방문자 수, 대출률, 프로그램 참여도, 장서 다양성, 공간 활용도, 운영 안정성 등 핵심 지표를 통합한 운영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서관별 운영 수준을 정량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 1회 정량·정성 평가를 병행하는 정기 평가 체계를 도입하여 도서관의 운영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맞춤형 컨설팅과 연계하여 활용되어야 한다. 운영이 취약한 도서관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을 기반으로 공간 재배치, 장서 구성 개선, 프로그램 개편, 홍보 강화 등 맞춤형 개선 전략을 지원하고, 우수 도서관에 대해서는 모범사례 발굴·확산, 인센티브 제공,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성과를 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컨설팅은 프로그램 운영, 공간 구성, 장서 개발, 이용자 분석, 홍보 및 자원봉사자 관리

등 운영 전반을 포괄하는 통합적 지원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보일 외(2024)는 작은도서관 전문가, 운영자, 담당자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통해 작은도서관의 조성부터 운영, 휴관, 폐관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 단계별 운영 지원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는 단발적 지원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컨설팅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및 컨설팅 체계는 직영화 전환 우선순위 설정, 기능 전환 대상 도서관 선정, 예산 배분 기준 마련 등 정책 의사결정과 연계될 수 있다. 나아가 정기적인 진단 - 개선 - 평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도서관 간 격차를 완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표 21〉 유성구 작은도서관 중장기 발전 전략

영역	주요과제	핵심내용
유성구 작은도서관 중장기 발전 전략	작은도서관 직영화 전환	- 공립 작은도서관의 단계적 직영화 추진, 전담 전문 사서 배치, 공공 책임 기반 운영체계 구축
	기능 전환 및 특성화	- 이용률 기반 기능 재편, 저이용 도서관 기능 전환, 지역 특성을 반영한 테마형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제도 개선 및 확대	- 운영환경·지역환경 기반 차등 지원체계 구축, 우수 작은도서관 인증제 및 운영자 포상제 도입
공공성으로 신뢰받는 작은도서관	장서 확충 및 맞춤형 자료 서비스	- 분기별 신간 공동구입, 생활권 및 이용계층 특성을 반영한 장서 구성
	독서공동체 및 포용적 문화서비스	- 독서동아리·주민참여 프로그램 확대, 정보취약계층 대상 문화복지 서비스 강화
다 함께 누리는 지식·정보 문화 활성화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협력 강화	- 상호대차 서비스 구축, 통합 회원제 도입, 공동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지역공동체 협력 확대	- 주민 주도 프로그램 확대, 지역기관·단체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전문성과 지속성을 키우는 운영 기반 강화	운영 레벨링(Leveling) 제도 도입	- 운영자 역량 단계화(Level 1~3), 맞춤형 교육 및 운영자 인증제 도입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체계	- 운영 성과지표 개발, 정기 평가 및 컨설팅, 데이터 기반 정책 의사결정 지원

VI. 결 론

본 연구는 유성구 공립 작은도서관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운영 현황 분석과 함께 이용자 만족도 및 수요 조사, 운영자 면담조사를 종합적으로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유성구 작은도서관은 관 수, 장서 규모, 이용자 수, 도서 대출 실적, 프로그램 운영 규모 등 주요 양적 지표에서 대전광역시 내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인구 규모가 유사한 타 지역과 비교하더라도 비교적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립 작은도서관 비중의 상대적 부족, 도서관 간 이용 실적과 프로그램 성과의 격차, 장서의 최신성 및 층분성에 대한 지속적 요구, 프로그램 다양성 확대 필요, 자원봉사자 중심 운영 구조로 인한 인력·행정 부담 등 질적 측면의 한계도 확인되었다. 특히 운영자 면담에서는 인력의 지속가능성 문제, 재정 운영의 경직성, 공공도서관과의 실질적 협력 체계 미흡 등 구조적 과제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유성구 작은도서관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성 기반 운영체계 확립, 지식·정보 문화 활성화, 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전문성과 데이터 기반 운영체계 정착이라는 네 가지 전략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단계적 직영화 전환과 전문 사서 배치를 통해 생활권 거점 공공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이용률 및 운영 성과를 기반으로 기능 전환·재배치와 특성화를 병행함으로써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최신 장서 확충과 이용계층·생활권 특성에 따른 맞춤형 자료 구성, 독서공동체 활성화 및 취약계층 대상 문화복지 서비스 강화를 통해 작은도서관이 지역 내 독서권 보장과 문화 격차 해소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도서관과의 통합 회원제 및 상호대차, 공동 프로그램 운영, 지역기관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자원 공유와 주민 접근성을 높이고, 운영자 레벨링 및 인증제 도입과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컨설팅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직영화, 기능 재편, 예산 배분 등 정책 의사결정과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러한 종합 전략은 유성구 작은도서관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지역 문화·교육 거점으로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유성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라는 점에서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용자 설문조사는 현재 유성구에서 운영 중인 공립 작은도서관 7개관 전체를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나, 설문 응답 규모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이를 통해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 전반을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운영자 면담조사는 서면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심층 면담을 통한 질적 자료 수집에 비해 의견의 맥락이나 세부적인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유성구 작은도서관의 현황 분석과 이용자 설문조사, 운영자 면담 조사를 기반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작은도서관 증장기 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특정 지역 사례에 국한되기보다는 향후 지방자치 단체의 작은도서관 정책 수립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작은도서관 정책은 단순한 시설 확충 중심의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 전문 인력 확보와 공공성 기반 운영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직영화 운영의 확대, 전담 사서 배치 등을 통해 공공서비스로서의 기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작은도서관 간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 운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생활권 기반 문화시설로서 작은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장서 확충과 프로그램 다양화 등 이용자 중심 서비스 전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용자 수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장서 개발,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운영, 독서공동체 활성화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지역 주민의 문화 접근성과 참여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셋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자원 공유와 서비스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통합 회원제, 상호대차 서비스, 공동 프로그램 운영 등 협력 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지역 내 도서관 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으며, 이는 제한된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유성구 사례를 통해 도출된 것이지만, 향후 다른 지역에서 작은도서관 정책과 운영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적용 가능한 실천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구정화, 김보일, 오선경 (2025). 작은도서관 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 운영평가 결과 기반 성과지표 도달률 측정을 중심으로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6(4), 223-252.
<http://doi.org/10.16981/kliss.56.4.202512.223>
- 김보일, 김홍렬, 이보라 (2020).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7(3), 157-175. <http://doi.org/10.3743/KOSIM.2020.37.3.157>
- 김보일, 박성재, 김용환, 한상우 (2024).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 분석 연구 - 서울특별시 K구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8(4), 173-198.
<http://doi.org/10.4275/KSLIS.2024.58.4.173>
- 김보일, 조미아, 변현주 (2015). 작은도서관 운영실태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9(4), 31-52. <http://doi.org/10.4275/KSLIS.2015.49.4.031>
- 김재철 (2013). 마을공동체 구심체로서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FOCUS 광주, 2013-06). 광주: 광주발전연구원.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8. 11. 8.). 생활SOC 확충으로 달라질 우리의 삶. 출처: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55409>
- 오선경, 구정화, 김보일 (2025).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실태 분석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42(4), 221-249. <http://doi.org/10.3743/KOSIM.2025.42.4.221>
- 이보라 (2023).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이용 행태 및 인식 연구: 성남시를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37(1), 291-315. <https://doi.org/10.16937/jcp.2020.37.1.291>
- 이영훈, 김수정, 황지호, 정철우 (2025). DEA를 이용한 작은도서관 운영 효율성 평가. 경영컨설팅연구, 25(1), 279-289. <http://doi.org/10.71429/kmcr.2025.25.01.22>
- 장경, 김혜영 (2025).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42(3), 137-159. <http://doi.org/10.3743/KOSIM.2025.42.3.137>
- 전경선, 이지수, 조상은 (2022). 양평군 공립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위한 운영자 인식조사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3(2), 97-119. <http://doi.org/10.14699/kbiblia.2022.33.2.097>
- 조미아, 변현주, 김보일 (2013). 운영진단을 통한 유형별 작은도서관 사례분석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2), 293-314. <http://doi.org/10.4275/KSLIS.2013.47.2.293>
- 조미아, 조현양, 김보일, 이보라 (2021). 성남시 작은도서관 증장기 발전 계획 2022~2026. 성남:

성남시(도서관사업소 도서관지원과 독서진흥팀).

진은설 (2022). 제주지역의 작은도서관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3(4), 163-188. <http://doi.org/10.16981/kliss.53.4.202212.163>

최만호, 노영희, 김윤정 (2021). 광명시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책 제안을 위한 운영자 인식조사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8(1), 1-23. <http://doi.org/10.3743/KOSIM.2021.38.1.001>

한문성, 노영희, 이근화, 최만호 (2017). 서울시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8(2), 185-217. <http://doi.org/10.14699/kbiblia.2017.28.2.185>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Cho, Miah, Byeon, Hyeon Ju, & Kim, Bo-il (2013). A Case study on measures to revitalize small libraries of the type through operational diagnostic.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7(2), 293-314.

<http://doi.org/10.4275/KSLIS.2013.47.2.293>

Cho, Miah, Cho, Hyun-Yang, Kim, Bo-il, & Lee, Bora (2021). Seongnam City Small Library Mid- to Long-Term Development Plan 2022-2026. Seongnam: Seongnam City (Library Business Office, Library Support Division, Reading Promotion Team).

Choi, Man-Ho, Noh, Younghee, & Kim, Yoon-Jeong (2021). A survey and study on operator's awareness for a suggestion of policy for revitalization of small libraries in Gwangmyeong ci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8(1), 1-23.

<http://doi.org/10.3743/KOSIM.2021.38.1.001>

Han, Mun-Seong, Noh, Younghee, Lee, Keun Hwa, & Choi, Man-Ho (2017).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small library operations in seoul.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8(2), 185-217.

<http://doi.org/10.14699/kbiblia.2017.28.2.185>

Jang, Kyoung & Kim, Hyeyoung (2025). A study on strategies for revitalization of reading culture programs in small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42(3), 137-159. <http://doi.org/10.3743/KOSIM.2025.42.3.137>

Jeon, Kyungsun, Lee, Jisu, & Cho, Sangeun (2022). A study on operator's awareness for revitalization of public small libraries in yangpyeong-gun.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3(2), 97-119.

<http://doi.org/10.14699/kbiblia.2022.33.2.097>

- Jin, Eunseol (2022). The actual management and vitalization plans for small libraries in the jeju regi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3(4), 163-188. <http://doi.org/10.16981/kliss.53.4.202212.163>
- Kim, Bo-il, Cho, Mi Ah, & Byeon, Hyeon Ju (2015). A study on promotion of small libraries through an analysis on the current situation of their oper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9(4), 31-52. <http://doi.org/10.4275/KSLIS.2015.49.4.031>
- Kim, Bo il, Kim, Hong Ryul, & Lee, Bo ra (2020). A study on the policy for the activation of small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7(3), 157-175. <http://doi.org/10.3743/KOSIM.2020.37.3.157>
- Kim, Bo-il, Park, Sungjae, Kim, Yong-Hwan, & Han, Sangwoo (2024). A comprehensive analysis for revitalizing the operation of small libraries: a case study of K-gu in Seou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8(4), 173-198. <http://doi.org/10.4275/KSLIS.2024.58.4.173>
- Kim, J. C. (2013). *A Revitalization Strategy for Small Library as a Village Community (FOCUS Gwangju, 2013-06)*. Gwangju: Gwangju Development Institute.
- Koo, Joung Hwa, Kim, Bo-il, & Oh, Seonkyung (2025).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small-library support policies: an outcome attainment(OAR) analysis from operational evaluation dat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6(4), 223-252. <http://doi.org/10.16981/kliss.56.4.202512.223>
- Lee, Bora (2023). A study on the usage behavior and perception for the activation of small libraries in Seongnam-si. *The Journal of Cultural Policy*, 37(1), 291-315. <https://doi.org/10.16937/jcp.2020.37.1.291>
- Lee, Yeong-Hoon, Kim, Su-Jung, Hwang, Jeoho, & Jeong, Chulwoo (2025). Efficiency evaluation and improvement strategies for small libraries using DEA. *Korean Management Consulting Review*, 25(1), 279-289. <http://doi.org/10.71429/kmcr.2025.25.01.22>
- Oh, Seonkyung, Koo, Joung Hwa, & Kim, Bo il (2025).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support policies for revitalizing the operations of small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42(4), 221-249. <http://doi.org/10.3743/KOSIM.2025.42.4.221>
- Republic of Korea Policy Briefing (2018. 11. 8.). *How Our Lives Will Change Through the Expansion of Living SOC*. Available: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55409>